



## 우리 여건과 현실에 맞는 교육은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학습 방법도 우리의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으면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세계의 교육 현장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KBS, EBS를 비롯한 각종 방송 매체에서 우리 교육의 대안으로 다른 나라의 교육 제도나 방법을 지속적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교육 제도나 방법론이 방송에 보도되면 바로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되곤 한다. 그런데 5년 이상 제대로 시행되는 교육 제도는 거의 없다.

## 사라져가는 교육 방법, 그 원인은?

대표적인 것이 ‘열린 교육’이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우리 교육을 변화시킬 목표를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미국의 ‘열린 교육’을 초·중·고 전 학령에 적용했다. 하지만 결국 6년을 넘지 못하고 우리 교육에서 사라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교육 모델이 만들어진 나라에서조차 검증되기 전에 바로 도입한 조급함이다.

‘열린 교육’이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급속히 확산될 때 미국의 사범대학교에 봉직하던 한 한국인 교수가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열린 교육’ 때문에 미국의 초등 교육이 손상되고 있다고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을 휩쓰는 열린 교육 열풍에 그 목소리는 묻혀 버리고 말았다.

둘째, 우리의 교육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도입한 탓이다.

각 나라의 교육 제도나 방법론은 자국의 교육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며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야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볼 때 교육학 박사 수가 외국 못지않지만 우리의 교육학자가 독창적으로 만든 교육 방법론은 거의 없고 앞다투어 외국의 것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 당연히 시행 착오가 발생되고 시행 착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결국 본질이 퇴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래 가지 못한 것이다.

## 우리 교육 현실에 맞게 하브루타 하기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은 5천 년 가까운 유대 인의 역사를 통해 변함없이 전승되어 왔다. 그 결과 유대 인들은 사회,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위치에 서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하브루타의 우수성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하브루타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역사, 문화, 삶의 방식, 입시 제도 및 평가 방법 등의 교육 제도, 가정 교육의 풍토가 유대 인과 우리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우리 여건에서 유대 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하브루타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브루타가 갖는 교육학적 특성과 유용성의 본질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 다음은 그 특성과 본질적 유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조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구조화한 것이 바로 유대 인들에게 없는 6가지의 수업 모형이다. 6가지의 수업 모형은 학령, 과목, 주제, 가용 시간,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브루타 수업 모형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하브루타를 우리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브루타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되는 요인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전반에서 하브루타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을 살펴보자.

### 첫째, 가르치는 사람조차 하브루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교수자 스스로도 체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시행 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교수자 스스로 하브루타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유아기 교육의 경우, 원장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원장과 교사들이 먼저 특정 주제나 교육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브루타를 해 봐야 한다. 그래야 하브루타가 어떤 것이고, 어떤 교육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유아기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하브루타를 할 수 있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이미 만들어진 교재나 수업을 위한 지침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교사들 스스로의 하브루타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 둘째, 하브루타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접목이 결코 쉽지 않다.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의 경우, 아직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 학령기에 비해 질문이 많고 토론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많은 말을 하는 것 뿐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보다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려서부터 본인 위주로 양육하는 방식이 원인이라고 하겠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시간 개념을 느끼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시간 개념을 금방 느낀다. 그러므로 지루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거나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이다. 유아기부터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말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 하브루타는 유아기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스스로 체득되는 것이 가능하다.



## 짝 토론으로 효과적인 하브루타 익히기

월  
질문하면  
좋을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짝 토론으로 체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교사가 학습 주제에 대해 토론할 질문을 제시한다(간단한 문장으로 제시).
- ② 유아 각자가 제시된 질문에 대해 상대방에게 말할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1분 정도).
- ③ 두 명 중 한 명의 짝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하게 한다(1분 정도).
- ④ 짝의 말을 들은 사람은 짝의 말을 듣고 질문하거나 반박할 내용을 생각할 시간을 준다(30초~1분 정도).
- ⑤ 짝의 말을 들은 사람이 처음 말한 짝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1분 정도).
- ⑥ 다시 처음 말한 짝은 다른 짝이 반박한 말을 들은 다음, 다시 그 말에 대해 대응할 논리를 생각할 시간을 준다(30초~1분 정도).
- ⑦ 짝1이 짝2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1분 정도)
- ⑧ 이런 과정을 적절하게 반복한 후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게 한다.



▲ 짝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이 훈련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바로 대응하게 되면 순간적 착상에 의한 대화나 토론이 된다. 그러나 잠시 생각할 기회를 주면 상대방 주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논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들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하여 다음 단계부터는 제대로 들으려는 자발적 경향이 가능해진다.

각 단계의 시작과 끝을 종소리 등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말이 끝나지 않았어도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1분 동안에 생각을 다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토

론에서의 1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1분 내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아쉬운 경험을 통해 핵심적으로 말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런 다음 2분 정도가 주어지면 핵심적 내용 위주로 충분히 말하게 되어 토론의 질이 향상된다.

이러한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시간을 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토론이 잘 이루어지며 그렇게 형성된 능력은 이후 학령기의 토론 학습에 주도적,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성공적인 토론 학습 능력은 유아기 때부터의 말하기 능력 훈련에 달려 있다.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레멘+ 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